"수능 EBS연계율 축소 · 폐지" 의견 모아

수능개편 3차 공청회…수능 절대평가 확대 범위 두고 '공방'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을 두고 수능 절대평가 '일부 과목 확대'(1안)와 '전 과목 도입'(2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수능과 EBS 연계율 개선 방안은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로 유지하되 개선하는 방안(1안)보다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2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학교 입학본부장, 고교교사, 교육단체 · 학부모 등은 지난 18일 오후 교육부가 부산 남구 부경대에서 개최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 3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으로 격론을 벌였다.

기존 한국사와 영어에 도입된 수능 절대평가를 다른 일부 과목으로 확대해 대입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현민 부산대학교 입학본부장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 적용되는 현 중3 학생들과 2020학년도 재수생이 느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제1안)의 선택이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조홍래 경북여고 교사도 "국어, 수학, 탐구영역을 상대평가로 유지한다면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변별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수능과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은 "고교 교육의 목적은 대학의 선발을 위해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약해졌다면 그만큼 더 학생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면접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 그 정도의 노력은 대학이 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했다.

울산성광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춘희 씨는 "절대평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2안인 전 과목 절대평가는 경쟁 상대였던 친구들을 인생을 함께 살아 낼 동반자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 행복을 담보 잡혔던 아이들이 행복을 찾으면 호기심이 살아나고 그 때부터 스스로 공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이 분분한 수능 절대평가 확대 범위와 달리 수능과 EBS 연계율 개선 방안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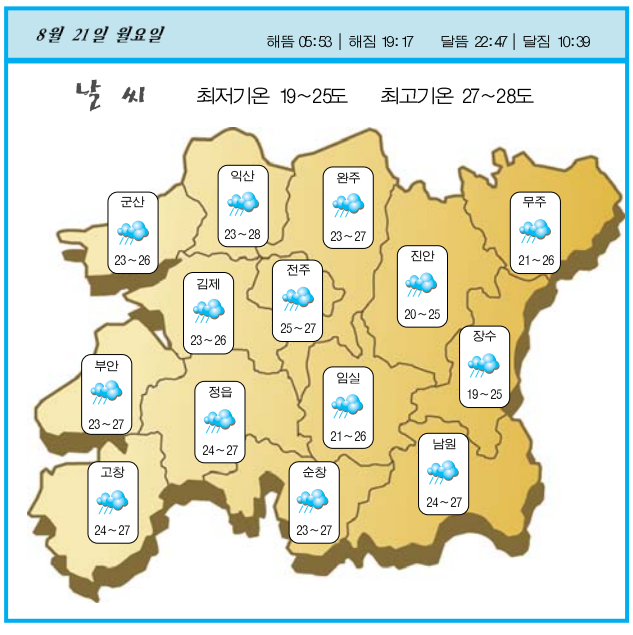
김 본부장은 "수능과 EBS 연계로 사교육이 경감됐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교육 왜곡의 한 요소로 작용한 만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연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출제 경향, 범위 등을 빠른 시일내 상세히 공개하고 농 · 산 · 어촌 등 취약지역 학생이 수능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사도 "일부 고등학교 고3 수업시간에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 교육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축소 · 폐지돼야 한다" 며 "201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EBS 교육방송과 교재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기 힘든 저소득층과 지방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수능과 연계되면서부터 독점, 권력이 됐고 고교 교육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연계율 축소 또는 폐지로 가야 한다"고 찬성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이들의 호기심이 살아나면 그 때부터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수능과 EBS 연계 정책도 굳이 애써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남대 정상화 위해 남원시민들 촛불 밝혔다

대학폐교 반대 한목소리

지난 17일 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촛불이 남원시내에 밝혀졌다. 시민들은 남원시 선원사 앞 사거리에 모여 일관성 없는 교육부의 사학행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를 외쳤으며, 서남대 폐교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17일 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촛불이 남원시내에 밝혀졌다.

이번 촛불 문화제는 지난 5월 제출된 서울시립대, 삼육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가 재원미련 계획 부족을 이유로 최근 반려(불수용)하면서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온 9만여 남원시민의 서남대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됨에 따라 촉발되었다.

특히 서남대 폐교를 예고하는 보도 이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해당 자치단체 대학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름에 따라 남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시민들은 남원시 선원사 앞 사거리에 모여 일관성 없는 교육부의 사학행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를 외쳤으며, 서남대 폐교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열린 촛불문화제에서는 하나 된 남원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남원시민의 열망을 표출시켰으며, 시민들의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다채로운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남대 폐교가 이뤄질 경우 남원시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촛불시위는 서남대 폐교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분노속에서도 차분하고 결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정린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9만 남원시민들의 뜻이 하나 될 때 서남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촛불은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이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기에 더욱 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화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원광대, 2017년도 하계 졸업 페스티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2017년도 하계 졸업 페스티벌을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페스티벌은 2016학년도 후기 졸업생들에게 학위수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도종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1명, 석사 185명, 학사 508명 등 총 754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으며, 조대호(사학과) 학생이 이사장상을 받고, 국제(國際) · 학제(學際) · 직제(職際) 등 융 · 복합적인 개인별 맞춤 교육에 중점을 둔 3합신사(三合紳士) 인재 육성 및 덕성 역량과 관련하여 추천된 이보름(경영학부), 박성훈(행정언론학부), 장셀라(경찰행정학과), 윤형균(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서지원(중어중문학과)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민규(산림조경학과) 학생과 대학원 박사과정 김민석(한의학과) 씨 등 7명이 김도종 총장으로부터 각각 공로상을 받았으며, 김진영(미술과) 학생이 총동창회장상을 받았다.

특히 경영학부 배혜진 학생은 평균평점 4.5 만점에 4.5점을 기록해 성적 최우등으로 총장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행정학과 장셀라 학생 등 7명이 7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했으며, 사회봉사 심화활동, 덕성훈련 심화과정, 선 · 효행, 나눔 실천 등 도덕적 실천덕목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도의실천인증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2명에게는 '도의실천인증서'가 전달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교사 극단, 학교폭력 주제 연극 공연

교사들로 구성된 극단이 연극 공연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극단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날부터 사흘간 연극 공연을 올린다.

전북교사극단 '드르륵'은 학교폭력 문제를 주제로 하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이날 오후7시 전주 소극장 판에서 공연을 올린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일본 고등학교 교사인 원작자가 여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가해와 은폐 등을 둘러싼 줄거리이다.

이번 공연은 이날 공연을 비롯해 총 4차례 공연을 올리게 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교사극단 드르륵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를 뜻한다.

/뉴시스